

무등정신 투영... 비엔날레 파빌리온 첫 ‘광주관’

내달 7일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광주시립미술관 ‘광주관’ 조성
5·18세대 등 18명 예술인 참여
‘혁신연대’ 등 3개 키워드 조명

오는 9월 7일 개막하는 광주비엔날레에서 파빌리온 ‘광주관’이 ‘무등: 고요한 긴장’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파빌리온광주관은광주시립미술관 2~3층에 조성된다. ‘무등’의 가치를 조명하며 광주예술을 대변하는 첫 광주관에는 김신윤주, 김응현, 나현, 송필용, 안희정, 양지은, 오종태, 윤준영, 이강하, 이세현, 임수범, 장종완, 장한나, 정현준, 조정태, 최종운, 하승완, 함양아 등 총 18명이 참여한다. 전세대에 거쳐 구성된 작가들은 회화, 사진, 영상, 설치 등 신작 포함 총 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무등(無等, equity)’은 광주의 물리적, 문화적, 정신적 근간으로, 차등의 전제 자체가 사라진 초월적 차원을 뜻한다. 무등산은 오랫동안 연약한 존재들이 찾아와 위로와 안전을 구했던 장소로 광주가 겪어야 했던 5월의 아픔을 묵도하고 보듬었던 신체이다.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첫 광주관은 ‘무등’정신이 불평등과 이기심이 만연한 국제 정세 속에서 소외된 것들을 소환하고 그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

를 위해 지향해야 할 언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전시는 크게 세 개의 키워드인 ‘혁신적 연대’, ‘창의적 저항’,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정의’로 구성된다. 특히 시각예술 뿐만 아니라 공동 프로젝트, 아카이브, 인터뷰, 집담회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른다.

‘혁신적 연대’는 ‘무등’이 표상하는 여러 함의 중 어떠한 위계도 없이 다양한 객체들이 서로 지지하며 형성하는 ‘연대의 실제’에 주목한다. 연구자, 언론인, 문화기획자, 작가, 디자이너 등의 참여자들과 광주정신이 오늘날 제시할 수 있는 가치와 의미의 다양성에 대해 논의한다.

‘창의적 저항’은 ‘무등’의 정신이 어떻게 불합리한 기준과 장벽들에 대항하는 힘을 담지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 참여 작가들과 작품들은 세대나 시기, 장르 구분에서 탈피해 도처에 편재하는 고정관념과 부조리의 상황에 응답한다. 이들은 광주의 5월과 그 이후의 시간에 축적된 시민들의 저항 정신을 가시화한다.

‘지속 가능한 정의’는 ‘무등’의 화두를 전 인류가 마주한 시급한 문제와 도전으로 확장시킨다. 전시는 기후 위기, 경제 불균형, 기술의 남용, 지속되는 전쟁과 에너지 고갈 등 전 지구적인 이슈를 인식한다. 더불어 참여 작가들은 예술을 통해 문명의 욕망이 초래한 기후와 환경의 위기를 가시화하며, 자연을 향한 인류의 왜곡



이세현 작 ‘푸른 낮 붉은 밤_옛 국군통합병원’

(재)광주비엔날레 제공

된 태도를 재검토해야 함을 주장한다.

참여작가들의 세계는 다음과 같다. 김신윤주는 조각보를 잇는 작업으로 시민 참여 예술을 진행하고 있다.

김응현은 데이터 환경과 개인의 주체성 연구를 토대로 영상 작품과 퍼포먼스, 조각을 선보인다.

나현은 역사와 예술을 융합하는 다층적인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다.

송필용은 만물의 근원인 ‘물’을 소재로 앞으로 나아갈 역사의 힘을 그려낸다.

안희정은 근대 문화유산인 건물을 육방체의 큐브로 재구성하여 이를 사진으로

답아내고 있다.

양지은은 그래픽 디자인 겸 출판 스튜디오인 프레스룸(PRESSROOM)을 운영하며, 데이터 시각화와 시각 정체성에 관한 확장 가능성을 탐구한다.

오종태(1917~2008)는 흑백 사진을 통해 광주·전남의 역사와 풍경을 기록했다.

윤준영은 단절된 화면 속에서 주로 콩테와 먹을 통해 내재화된 불안을 끌어내어 묘사하고 있다.

이강하(1953~2008)는 독자적 리얼리즘 화풍으로 남도 사람의 애환과 삶, 남도의 풍경들을 보여주었다.

이세현은 역사적 장소를 사진으로 담아

내어 잊혀진 기억을 상기시킨다.

임수범은 불안정한 세계를 확장하며 그려 나감과 동시에 신화적 자연의 생태계를 묘사한다.

장종완은 유토피아적 장면을 묘사함과 동시에 불안이라는 현실적 감각을 자극하며 낙원에 대한 믿음의 이면을 다룬다.

장한나는 암석화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집하여 예술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현준은 소외된 이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가시화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낸다.

조정태는 굴곡진 시대상을 드러내고자 역사의 상흔을 찾아 묘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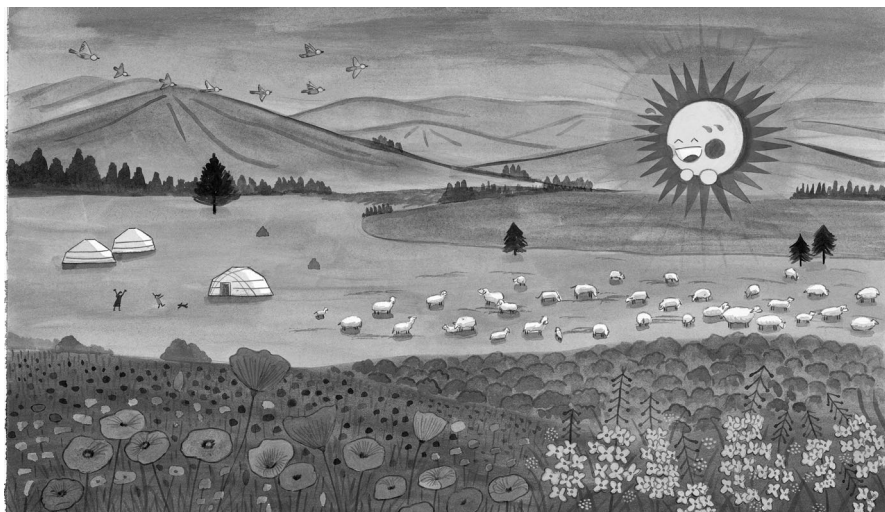
최종운은 공존의 순간에 존재하는 고요한 긴장의 상태를 시각화하여 공감각적 경험으로 펼쳐낸다.

하승완은 신화, 설화, 성서에서 수집된 이야기 속 서사구조를 추출하여 사건을 재구성한 뒤 담화를 묘사한다.

함양아는 국가와 사회 시스템 속 개인과 집단, 나아가 환경 사이의 문제를 탐구한다.

광주 파빌리온 관계자는 “광주의 5월을 경험한 세대들뿐만 아니라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 그리고 광주 밖의 무수한 공동체들과 연대 의식을 도모할 수 있는 공통의 기억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김혜원 글그림 ‘세 친구’.

ACC재단 제공

ACC재단 ‘구르구르와 세 친구의 모험’ 원화전

ACC 어린이도서관... 그림책 원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ACC 어린이도서관에서 어린이 책 놀이터 나들이 ‘구르구르와 세 친구의 모험’ 원화 전시를 지난 3일부터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아시아 스토리를 기반으로 ACC가 창·제작한 어린이 공연을 각색해 ACC재단이 출판한 그림책 ‘세 친구’와 ‘개굴개굴 고래고래’의 원화 작품을 바탕으로 구성했다.

김혜원 작가가 글·그림에 참여한 ‘세 친구’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유목민들의 민화 ‘세 친구 이야기’를 소재로 제작됐다. 밤이 되면 보이지 않는 태양이 어디로 숨는지 궁금해진 새끼 염소, 아기 양, 송아지가 태양을 찾아 떠나는 모험을 다룬다.

이어 박현민 작가의 ‘개굴개굴 고래고래’는 베트남의 전래동화 ‘개구리가 울면 왜 비가 내릴까’를 소재로 했다. 용감한 개구리 구르구르가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으로 힘들어하던 코끼리, 호랑이, 사슴 친구들과 함께 비를 찾아가는 여

정을 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따라 모험을 떠난 동물 친구들의 여정을 통해 자연의 경이로움과 소리, 소중함을 전달한다. 또한 어린이 관객들에게 용기를 내어 각자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찾아 더 넓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 보길 제안한다.

아울러 전시는 그림책 원화를 비롯해 원화 이미지를 활용한 조형물, 드로잉, 스토리텔링 영상, 체험활동 등을 통해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책 읽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어린이 책 놀이터 나들이’는 어린이들의 책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ACC재단이 매년 개최하는 그림책 원화 전시다. 올해는 ACC재단이 처음으로 발간한 두 권의 그림책 ‘세 친구’와 ‘개굴개굴 고래고래’를 소개한다. 이번 전시는 내년 7월 6일까지 이어진다.

전시는 ACC 어린이도서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광주시향 정기연주회 ‘레지에로’ 공연

29~30일 광주에당 소극장 모차르트·차이콥스키 작품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386회 정기연주회 ‘Leggiero(레지에로)’를 선보인다. 광주시향은 이날 지휘자 최수열,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와 함께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5번’과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선보인다.

연주회의 포문을 여는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5번’은 수려함과 음악적 완벽함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힌다. 전체적으로 맑고 화려한 기교와 단아한 사랑스러움에 덧붙여 젊음과 힘이 넘치는 곡이다.

이어 후반부는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연주한다. 이 곡은 차이콥스키 가슴에서 우러난 감정을 담은 ‘내면의 충동’에서 비롯된 곡으로 그의 진정한 예술적 가치를 느낄 수 있다. 풍성한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으로 차이콥스키의 가장 서유럽적인 면을 대표하는 곡이라 할 수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 입학을 거쳐 뉴 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석사학위, 크론베르크 아카데미 연주자 과정을 취득했다. 차이콥스키 콩쿠르 3위 및 모차르트 최고연주자상, 예후디 메뉴힌 콩쿠르 3위, 사라사테 콩쿠르 우승, 레오폴트 모차르트 콩쿠르 청중상 및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날 광주시립교향악단을 이끌 지휘자 최수열은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를 거쳐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현재는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지휘자로 활동하면서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수석 객원지휘자도 겸하고 있다. 현대음악에 대한 탁월한 재능과 아카데미하며 창의적인 프로그래밍 감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함께 하는 연주자들을 먼저 배려

하면서도 책임감을 잃지 않는 리더십을 지닌 지휘자로 알려져 있다.

공연 티켓은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티켓링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입장권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초등학교생부터 입장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드라마 콘서트’로 보는 김대중 일대기

광주문화재단 ‘평화의 별...’ 17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광주문화재단은 민주주의 정신 계승을 위해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드라마 콘서트 ‘평화의 별, 통일의 강-인동초 사랑’을 선보인다.

공연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드라마 콘서트’ 형식의 작품이다. 대통령의 일대기를 변사 이항의 씨 해설로 선보이며 더불어 성악가 고성현, 정주훈, 권로, 가수 신형원, 소리꾼 이영대 씨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무대에 선다. 여기에 코리아모던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인동초 사랑 시민 합창단이 협연한다.

공연 관람은 만 7세 이상 가능하며 관람료는 전석 무료(초청)다. 일반 관람은 1인 최대 4인 예매가 가능하며, 5인부터 광주문화재단 예술누리팀(062-670-7443)으로 예매하면 된다.

노회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획한 드라마 콘서트 형식의 작품으로 대통령의 일대기와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기획했다.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